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 성료… ‘세계를 향한 대나무의 비상’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담양대나무

축제'가 세계인을 매료시키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죽녹원 일원 5일간 개최… 야간 경관·체험형 콘텐츠 ‘호응’ 해외 인플루언서 등 국제 관람객 참여로 ‘글로벌 축제’ 도약

‘담양, 초록에 물들다’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생태,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해외 인플루언서와 유학생들이 개막식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거 참여해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죽녹원과 축제장 일대, 관방제림에는 ‘대나무 소망등’ 등 야간 경관이 조성되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더했다. 죽녹원은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일일 최대 2만여 명이 찾는 등 축제 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권을 환급형 쿠폰으로 전환해 인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으며, 주민들로부터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돋보였다. 향토음식관을 통해 담양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죽순을 활용한 신메뉴 경연대회에서는 ‘들깨크림 죽순만두’ 등 5개의 독창적인 메뉴가 선정돼 관람객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죽순의 다양한 활용성과 지역 식문화 발전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공연과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졌다. 이찬원, 김경호 밴드, 김태연, 황가람 등 대중가수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한 무대는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베베핀’ 공연, 담빛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드론 체험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이 외에도 ‘운수대통 대박 터트리기’, ‘팬더를 이겨라’ 등 현장 게임과 이벤트가 축제장 곳곳에서 열려, 관람객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선물을 전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올해 대나무축제는 담양의 생태·전통·문화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담양만의 차별화된 매력으로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명품 축제로 키워가겠다”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빠른 공장설립 지원…인허가 사전진단서비스

비용과 시간의 단축

곡성군이 정착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빠르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사전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곡성군은 기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단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추진한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종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위치 정보와 각종 법령,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공장 입지선정 문제와 환경규제 문제도 사전에 안내한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기존 공장 관련 민원에 사용하는 팩토리온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 지자체가 아닌 지역의 입지를 확인하는 경우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곡성군은 현재 곡성읍곡특화농공단지외의 분양공고를 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가 현재의 기능에서 멈추지 않고 기능이 점점 개선돼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농업인대학, 토양건강진단으로 과학영농 실천

작물별 토양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구례군은 지난 5월 1일, 농업인대학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토양건강진단과 시비처방서의 이해’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토양 건강을 진단하고 적절한 시비처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생들은 본인의 경작지에서 직접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종합검정실에 분석 의뢰하여 시비처방서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토양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 재배 계획을 수립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토양검정은 토양 내 양분 상태를 분석해 불필요한 성분을 줄이고 부족한 성분을 보충하는 과정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토양 환경을 보존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다.

한 교육생은 “친환경 흙 살리기 과정을 통해 탄소 저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천 방

법을 배우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례=양형식기자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영산강 정원 꽃 심기’ 행사

주민 함께 성장 지속 가능 녹색 공간 조성

나주시는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가꾸기’ 및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4월 25일 농업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는 합동으로 영산강 정원(나주시 영산동 757-1)에서 꽃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7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해 영산강 정원 진입로와 하늘광장 둘따 꽃동산에 철쭉 500주, 송엽국 2880본, 꽃잔디 7400주를 식재하여 지역 경관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나주시는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도비 100%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청정전남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 3백만 원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사업에 2백만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여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나주시 관계자는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가 힘을 합쳐 추진한 이번 꽃 심기 행사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해 나주가 청정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장성군, 전 구간 가로수 3만 2000여 그루 중점 관리

가지치기·접순 제거·보식작업 등 실시 방침

장성군이 경관 향상과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국도 1호선 등 215km 구간 가로수 전 노선을 중점 관리한다.

대상은 군목인 단풍나무를 비롯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36개 노선 가로수 3만 2000여주다. 생육주기에 따라 가지치기, 접순 제거, 보식작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을 영천리 단풍나무 등 4개 노선 가로

수 3000여 주는 앞선 3월에 관리 작업을 마무리했다.

병해충 방제작업은 10월까지 총 3회를 실시해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훼손이나 배수 불량 등으로 고사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간별 보식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나무를 심는다.

장성읍~축령산 편백숲 방면 군도 13호선 편백나무 가로수길은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주변 정리를 실시해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가로수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지역민과 방문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되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마일

포스코A&C